

정부 부채 증가율 43개국 중 3위...아르헨티나·중국 다음

2000년 이후 정부부채 증가율 연 14.4%...가계부채는 9.8%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율이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에 올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을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경연이 산정한 43개국은 대부분 선진국에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신흥·중간소득국이다. 저소득 국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위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연평균 정부 부채의 증가율은 14.4%로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8%)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한경연은 고령화 요인으로 정부의 연금·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 부채가 미래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구(IMF)가 지난 4월 2015년에서 2050년 사이 개별 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고려한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부채는 159.7%로 43개국 평균인 77.4%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결과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 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 정부 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지난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지난 18년간 가계부채 증가율(9.8%)도 1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5%로 BIS가

통계로 제공하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 경우 지난해 43개국 평균이 1.5%p 하락해 94%를 기록할 때 한국은 오히려 98.3%에서 101.7%로 3.4%p 늘었다. 더욱이 한경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비중이 32.3%에서 35.7%로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 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상반기 카드 일평균 이용금액 5.8% 증가...“소액화 지속”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한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5.8% 늘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기준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 금액은 일평균 79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역원(8.8%), 현금C카드·직불카드 22억원(84.3%) 순이었다.

신용카드 중 개인 이용 실적(1조5130억원)은 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7.4%)를 지속했다.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쇼핑 이용 실적이 23.0%로 가장 많이 늘었다. 공과금 및 개인·전문서비스는 9.3%, 건강

신용카드 이용실적 온라인쇼핑·공과금·의료 및 보건 전인 계좌이체, 모바일뱅킹 중심 증가...어음·수표 역대 최대 감소

(81조4000억원) 대비 2.2% 감소했다. 현금 이외 지급수단은 계좌이체, 어음·수표, 지급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말한다.

지급카드 이용 금액(총 445조 원)은 일평균 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조 9310억원(증감률 5.7%), 체크카드 5210억원(6.2%), 선불카드 23

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영향으로 의료 및 보건이 9.0%, 지난 3월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으로 교육이 7.7% 늘었다.

법인(4180억원)은 카드사가 법인 대상 영업 활동을 줄이며 전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0.1%)했다.

체크카드 이용 실적은 신용카드

보다 높은 세제 혜택, 신용카드와 대등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 실적 증감률은 7.1%였다. 지급카드 전체 이용 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전년과 같았다. 체크카드는 근로소득세 연 말정산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의 2배다.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3316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1억8780만장)를 상회했지만, 발급장수 차이는 2445만장으로 전년말(2605만장)에 비해 축소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각각 4만1492원, 2만2172원으로 소액화 현상이 지속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건당 결제금액 각각 4만3089원, 2만2472원보다 3.7%, 1.3% 감소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주로 소액결제에 이뤄지는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의 지급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건당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총 1경465조원)는 일평균 59조 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뱅킹, 펌뱅킹, 모바일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 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전자금융공통망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특히 모바일뱅킹은 등록고객 수가 늘며 전년동기대비 18.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매장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추석을 맞아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2일부터 주요 계통판매장에 대한 식품안전 자체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전남도내 350여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 축산물판매장 등으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농협은 지역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용한다.

농협 전 계통판매장에서는 철저한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 '코너별 자체 점검 항목'을 지정해 상시 점검과 종사자들에 대해 식품 기본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판매장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식품안전점검을 위탁 실시하는 등 새로운 식품안전 점검방식을 도입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고 있다.

뉴스1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여건 전반적 양호할 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가격은 하락 할 듯

올해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올 추석은 전년(9월24일)보다 10일 정도 이르지만 폭염이나 태풍 등

여름철 기상 여건이 양호해 추석 성수품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돼지, 계란 가격 모두 전년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사과와 배는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감은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령지 배추와 무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이 예상되고, 햅쌀(조생종) 가격도 전년보다 하락이 점쳐진다. 추석 성수기 햅쌀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0kg당 5만1000원 내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밤이나 대추 등 임산물도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약세를 예상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